

로 兩手を 따라 垂下하면서 三角形을 이룬 後面으로 물려서 그 下端에서 꼬리와 같이 突出되고 있다. 下衣는 平行縱線의 衣紋이 새겨졌을 뿐이며 右手는 들어 五指를 뒤엎고 左手에는 長方筒器를 받들고 있다. 兩足은 함께 모았는데 下端에는 四紋 履形이 새겨져 있다. 垂直을 이룬 身部左側線에서 보아 元來 脇侍像인 듯 한데 彫法과 作風에서 中國 北朝系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 年代는 六世紀頃으로 推定되는 바 全鑄像으로서 彫法은 素朴強直하다. 全高 八·五cm.

以上 三像中 (1)은 臺座具存의 立像으로 國內外에서 類品을 볼 수 있으나 (2) (3) 특히 (3)은 매우 稀貴한 遺例로 보인다. 以上 三品은 아직 代表部에 保管中인데 國立博物館에 收藏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註) 一九六四年 四月 日本東京에서 서울朴某氏에게 이 佛像을 向讓한 바 柳氏의 모략으로 紙上에 報道된 바 있으나 全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며 그 以上의 言及을 拒否하였다.

一九五〇年 三月 金浦空港에서 金佛像密送事件이 있어서 그때 押收된 金銅菩薩立像 一軀(三國推定)는 현재 國立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 바 이들이 그 事件과 有關한 것인지 또한 알 수가 없다.  
(一九五〇、三、九 東亞日報)

## 英陽 新邱洞 三層石塔

秦弘燮

英陽郡 立巖面 新邱一洞에 조그마한 三層石塔이 있다. 一重基壇위의 三層石塔으로 第三層塔身, 上基壇 面石 一枚와 相輪部의 大部分을 喪失하였을뿐 다른 部分은 完形을 維持하고 있다. 原來 壇상이 甕돌이 塔全體를 덮고 있던 것을 除去하여 原形을 露出시켰다.

下基壇은 大部分 埋沒되었으나 面石에는 柱形이 없고 眼象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인다. 甲石은 三枚로서 構成하고 있다. 上基壇은 隅柱形이

있는 面石이 各面一枚씩으로 構成하였고. 一枚로된 甲石上面은 緩慢한 傾斜를 이루었는데 塔身을 받기爲하여 三段의 받침이 마련되었다. 塔身部는 身蓋 모두 一石으로 되어 있는데 屋身에는 各其 隅柱形이 있고 屋蓋石은 받침이 各層



四段이며 처마끝은 直線이고 轉角이 若干 들리는 新羅石塔의 樣式을 따르고 있다.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三層屋身은 喪失되었는데 現在는 露盤을 끼어서 代置하고 있다. 相輪部는 前記 露盤과 頂上에 있는 覆鉢만이 남았을뿐 全失되었다.

이 탑은 全體高(現高)二·五m 程度の 小塔이지만 各部의 均衡이 아름다운 美麗한 塔이다. 全面에 風化를 입었고 基壇部는 完全하지 못하지만 新羅下代의 佳作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탑은 上基壇 面石 一枚가 없어져서 마치 龕室과 같이 보이는 데 그 안에 石佛坐像 一軀를 安置하고 있다. 頭部가 切斷된 外에 全身磨損되었고 膝部前面이 破損되었으며 그 위에 胡粉을 塗裝하였던 것이다. 本塔과는 關係가 없을 것이나 附近에서 發見된 것으로 보여진다. 本像의 年代도 塔과 거의 同代로 보여진다.

끝으로 古蹟調査資料에 立岩面 新邱洞에 三層石塔이 記錄되어 있는데 그 說明에 「塔身에는 四面 共 佛像이 浮刻되었다」라고 있으나 本塔에는 그러한 彫刻이 보이지 않으니 新邱洞에 이 以外에 다른 塔이 있었는지 또는 誤記인지 알 수 없다. 現在 新邱洞에서 이 以外에 다른 塔을 찾지 못했다. 이 資料에 記錄된 바에 依하면 높이 七尺、 基壇 直徑 三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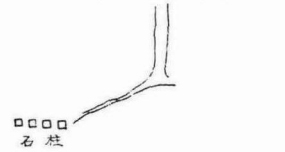
이라고 있어 크기가 大體로 符合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調査에 期待하는 수 밖에 없다.

### 環城寺大雄殿과 尋劍堂

申 榮 勳

一九六三年二月 同人 鄭永鎬 金和英 兩氏와 더불어 慶北古蹟을 踏査하는 路中 環城寺를 尋訪할 수 있어 兩氏의 配慮를 받으며 大雄殿과 尋劍堂을 調査할 수 있었다(永川郡河陽面沙器洞).

大雄殿은 巨石亂層쌓기한 石壇위에 따로 基壇을 마련하고 거기에 五間(約 三九·二七尺) 三面の (約 三一·三一尺) 平面으로 지은 法堂이다. 平面構成은 多包建物の 通性인 外平柱 內高柱群으로 形成되었다. 柱身에는 배흘림이 있고 귀기둥은 一寸의 膨大과 귀솟음이 있다(柱徑 九·三寸) 前面五間에는 모두 떠살무늬의 分閣門을 달고 門引枋 위로 昌枋과 平枋을 짜들렀다. 栱包는 外三出目內四出目으로 多包를 密組하고 各長舌사이에 巡閣天井을 바쳤다. 처마는 겹처마, 서까래는 斷面이 圓形인 것이나 浮椽은 高가 낮고 幅이 넓은 것이고 착고도 착고맥이와 平交臺를 한몸으로 만든 것이다. 지붕은 팔작기와 지붕이나 별다른 裝飾은 없고 夫女莫斯瓦만이 있다. 閣閣에는 卒臺木을 단 博風板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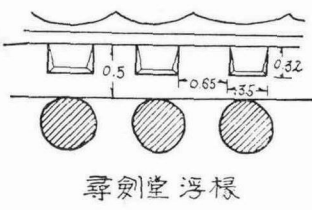
內部構造도 一般的인 樣式으로 前平柱로부터 內高柱(佛壇左右의 高柱)에 걸쳐 大樑을 걸고 內

高柱와 後面平柱上에는 退樑을 架構하였다. 側面에서 올라오는 樑樑이 大樑中間에 結構되었으며 大樑以上の 架構는 우물천정으로 가렸다. 中央格子內에는 圓形板刻으로 加飾하였다. 中央間高柱前에 寶蓋를 만들고 그것을 나양각으로 장식하였다. 바닥은 板床 우물마루 그 中央 寶蓋下에는 須彌壇이 있고 壇上엔 佛像이 奉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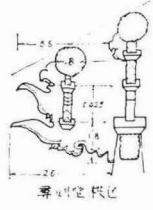
尋劍堂 大雄殿前庭向左側 基壇上에 建立되었다. 맞배기와 지붕으로 正面四間側面三間的 規模인데 最近에 一間을 添構하여 廚房으로 使用하고 있다(現在 寮舍로 使用하고 있음) 堂은 原來부터 居室로 使用하기 위하여 있었음인지 溫突을 施設하고天井도 紙天井을 하여 內面을 모두 가리고 있다. 軸部의 構成이나 架構·栱包는 素朴한 柱心包의 類인데 여러部分에 注目할만한 部材가 挿入되어 있다. 特히 臺工이나 栱包 그리고 軒은 他建物과 相考할 만한 樣式을 具備하고 있다.

大雄殿과 尋劍堂은 多包系와 柱心包系로 그類는 다르나 細部樣式에서는 許多한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이 共通點에서 李朝初期의 樣式을 抽出해 낼 수 있지 않을까 希望하고 있는데 이는 大雄殿은 鳳停寺 大雄殿이나 서울南大門 등의 建物과 比較되고 尋劍堂은 開心寺 尋劍堂(成化十三年)이나 松廣寺 國師殿 등에 類似하기 때문이다.

紙面關係도 있고 하여 詳巧할 수 없어 未洽하나 그 概略을 紹介함에 三 精査後 細部考察은 後考를 기다리기로 한다. 同寺는 關野貞氏 등의 調査를 거친 듯 하나(朝鮮古蹟圖譜에 寫眞掲載된 그



尋劍堂 浮椽



臺工



須彌壇 眼象